

김정일 사망 후 대북정책 방향:

미래 대비 차분한 포석 마련

박종철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Online Series CO 11-34

북한과 같이 권력이 고도로 중앙집권화 되고 최고통치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사회에서 최고지도자의 사망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더욱이 후계체제가 아직 불확실하고 대내외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의 사망은 국가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정일 사망 후 일단 단기적으로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후계체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 후계체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김정은은 정보화와 세계화가 진행되는 21세기에 시대착오적인 3대 권력세습을 정당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더욱이 김정은이 물려받은 것은 경제난과 국제적 제재, 주민불만 등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실패국가이다.

김정은 후계체제의 권력구조와 향후 대내외 정책은 북한 주민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김정일 사망에 대해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유의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한반도위기관리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범정부차원에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군도 군사적 대비체제를 가동시킨 것은 적절하다. 북한이 과거 체제결속이나 내부불만의 대외 이전 차원에서 대남도발을 감행했던 점을 감안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의 안정화와 점진적 변화를 희망한다는 점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권력 승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정이나 군사적 충돌은 남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북한의 새로운 지도체제가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내년 초 강성대국 선포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를 위해 우호적인 대내외 환경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북정책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의 폭을 확대하려는 우리 정부의 현 정책기조는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되,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의 확대, 남북대화의 채널확보 등을 염두에 둔 현재의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위기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신지도부의 정책변화를 유인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제적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정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야 한다. 한·미·일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와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조도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협의를 통해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비핵화와 남북협력, 국제협력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대내적 안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김일성 사망, 핵실험 등 북한 발 메카톤급 뉴스에 대해서는 면역력을 키워왔다. 김정일의 뇌경색과 건강악화 이후 그의 사망이 줄 수 있는 충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내구력이 신장되어 왔다 할 수 있다. 김일성 사망 시의 조문파동과 같이 김정일의 사망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우리사회의 진보, 보수간 남남갈등 양상이 재연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서 담담하게 관망하면서 북한과 한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비하는 원숙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권내에서도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하는 성숙한 모습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성숙한 자세는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고 우리 경제의 해외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김정일 사망의 충격파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우리의 위기관리 역량과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해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는 또 한 차례의 역사적 변곡점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이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지 아닐지는 상당부분 우리에게 달려있다.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북한의 상황변화를 주시하되,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적 포석을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이다.